

Session 02 첫째 인봉 :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정복 (The First Seal : The Antichrist's Political Aggression)

I. 복습 : 인봉, 나팔, 대접 심판의 구조

- A. 세 가지 연속된 심판들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처음 4가지 사건들을 함께 묶일 수 있으며, 그 다음 두 개가 함께 묶이며, 마지막 사건은 따로 떨어진다. 이것을 아는 것은 이 심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B. 처음 4개의 인봉들은 다음으로 오는 2개의 인봉과 구별되며, 이 2개도 마지막 1개와 구별된다. 처음 4개 인봉 사이에서의 유사점은 각각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다(흰색, 붉은색, 검정색, 청황색). 네 마리의 말은 스가랴가 목격한 말과 일치한다(붉은색, 검정색, 흰색, 아롱진 색, 속 1:8-11; 6:1-8).
- C. 처음 4개의 인봉에서는 생물에 의해 주어지는 선포에 따라 말 탄 자가 등장하며, 이것은 심판으로 이어진다. 심판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막으시던 손을 떼심으로 인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불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며 다른 이들을 파괴하게 된다.
- D. 처음 4개의 인봉 심판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자연계에서의 일들을 말하고 있다. 다섯째, 여섯째 인봉과 일곱째 인봉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고 있다(계 6:9-17).
- E. 인봉 심판의 대상은 음녀 바벨론과 연합한 나라들이다. 적그리스도는 이 나라들을 무력으로 정복하며, 이로 인해 세계 대전과 경제난, 가난과 질병이 일어나게 된다.
- F. 음녀 종교는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열 왕의 질투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대 환란이 시작되는, 첫째 인봉이 떼어지는 시기에 음녀를 태워버릴 것이다.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16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계 17:12,16)

- G. 자발적으로 섬겨지던 관용적인 음녀 종교는 강제적인 적그리스도 종교로 바뀌게 될 것이며, 이 적그리스도 종교는 엄격하며 어떤 관용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계 13:4-18). 음녀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두주자”의 역할을 한다.
- H. 일곱 인봉을 떼는 주체는 사단이 아닌, 어린양 예수님이시다(계 5:5, 6:1,3,5,7,9,12; 8:1). 요한계시록은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인봉 심판들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로운 경고이며, 이를 통해 적그리스도와 악한 자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예수님)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계 6:1)

- I. **오라(Come and See)** : 한 목소리가 나서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 가까이 나아와 명확하게 볼 것을 말한다(계 6:1,3,5,7). 이는 우리에게도 예언된 일들에 대해 가까이 와서 더 명확하게 볼 것을 말하는 이 중적인 부르심이다.
- J.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세계에 등장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에 대해 예언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살후 2:3)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는 그날(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나서 죄의 사람(적그리스도)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살후 2:3, 한글 KJV)

II. 첫째 인봉 : 적그리스도

- A. 흰 말을 타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계 19:11)을 위조한 것이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 6:2)

- B. **흰 말** : 말은 속도와 힘을 말하며 흰 것은 의를 상징한다. 적그리스도의 정복은 처음에는 열방에 대해 의롭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 C. **면류관** : 열방에 대한 권세를 가지게 됨을 나타낸다. 그는 갑자기 국제적인 권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사단과 적그리스도는 둘 다 면류관을 가진 것으로 그 모습이 묘사된다(계 12:3; 13:1-2,7).
- D. **화살 없는 활** : 초기에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아무런 피 흘림 없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활은 고대에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먼 거리에서 적을 공격하는 무기였다. 이 말 탄자는 말을 타고, 활을 손에 쥐고,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활에 화살이 없으므로, 이것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의 위협이 있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E. 초기에 그의 정복은 기만적인 외교에 의해 피 흘림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게 될 것이다. 그는 국제적인 리더들에게 전쟁으로 사사로이 위협하는 동시에, 대중들에게는 그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 F. **정복** : 적그리스도는 역사에 유례가 없는 연속적인 정복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는 초기에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역에서만 정복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는 군사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둘째 인봉), 이는 경제적인 위기를 가져오며 전 세계적인 기근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셋째 인봉). 3년 반 동안 그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비취지게 될 것이다(계 13:4).

- G. **받고(given)** : 그가 받은 능력은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그의 권세를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며, 이차적으로 사단으로부터 받는다(계 13:2). 또한 그에게 자발적으로 권세를 주는 왕들에 의해서도 받게 된다(계 17:17). “받고”라는 어휘는 계시록에서 22번이나 사용된다. 두 증인, 적그리스도, 천사들 그리고 악한 존재들(황충 등)은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계 6:11; 7:2; 8:2; 9:1,3,5; 11:2-3; 12:14; 13:1-18).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15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 (계 13:5,7,15)

- H.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결코 놀라게 하지 못한다. 적그리스도 또한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일 뿐이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3년 반 동안 특정 부분에 대한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열방에 대한 권세를 받으셔서 가지시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적그리스도는 배교한 이스라엘과 악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다(슥 11:16-17).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8)

...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았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롬 13:1)

III. 적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

- A. 적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를 아우르는 리더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할 것이다. 그는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권세와, 가장 강력한 군대와, 가장 많은 돈과, 악마적인 기적들로 인해 가장 큰 종교적 네트워크를 가지게 될 것이다(계 13장).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 장은 다니엘서 11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계시록 13장이다.
- B. 적그리스도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사람에게 자비를 구하며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인데, 이는 그가 짐승과 같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계시록에서 “36”번 짐승으로 불린다.
- C. 적그리스도는 모든 나라에 대해 권세를 가지며, 모든 나라에서 경배 받게 될 것이다(계 13:8). 그러나 그는 각 나라를 완벽하게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어떤 나라와는 전쟁을 하고 있게 될 것이다(단 11:40-45).
- D.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정복을 도울 것이며(계 13:11-18), 10개국 연합은 적그리스도에게 역사상 가장 큰 힘의 근간이 되어 줄 것이다(계 17:12).
- E. 적그리스도는 음녀 종교보다도 더 자신을 높일 것이다(단 11:36).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을 펼 것인데, 이는 그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그를 경배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

이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 37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 나 (단 11:36-37)

저(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살후 2:4)

그는 대적하는 자이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살후 2:4, 한글 KJV)

- F. 음녀로 인해 죄 또는 패역함이 극도에 이를 때에, 마지막 날에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첫째 인봉에서, 적그리스도는 음녀를 죽이게 될 것이다(25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적그리스도)이 일어나리니 ... 24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귀신의 권세)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세계의 리더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5 ... 또 평화한 때에(음녀) 많은 무리를 멸하며 ... (단 8:23-25)

- G. 초기에 적그리스도는 기만적인 외교 정책을 통해 평화로운 정복을 이루게 될 것이며, 이는 첫째 인봉의 때이다. 그는 또한 열방에 대한 영향력을 얻게 위해 악마적인 표적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가 피를 베풀어 제 손으로 궤혈을 이루고(개역개정판 : 속임수를 행하고) ... (단 8:25)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궤혈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단 11:21)

악한 자(적그리스도)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살후 2:9)

- H. 우리는 히틀러를 통해 “평화로운 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나치는 독일의 라인 지방을 점령했으며(1936년 3월),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1938년 3월), 체코의 독일어권 지역인 수테텐란트를 넘겨받았으며(1938년 9월), 그 이후에 체코 전체를 점령했다(1939년 3월).

IV. 첫째 인봉이 풀어지는 시기와 일치하는 사건들

- A. 음녀 바벨론 종교 네트워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 인봉이 떼어지는 시기에 일어날 것이다.
- B. 바울은 멸망이 홀연히 임하기(대 환란) 바로 전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잠시 동안 있게 되는 전 세계적인 평화의 시기이며, 대 환란이 시작될 때 갑자기 끝나게 된다. 세계는 적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리더십에 의해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세계적인 평화는 마지막 7년

이 시작될 때 임하게 될 것이며, 3년 반 동안 지속될 것이다(살전 5:2-3; 단 9:27).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살전 5:3)

C. 두 증인은 후 3년 반 동안 사역하게 되는 큰 권능으로 기름부음 받은 예언자들이다(계 11:3-6).

D. 사단은 땅으로 내어 쫓길 것이며, 그리고 나서 그의 보좌(위)를 적그리스도에 줄 것이다. 후 3년 반 동안 지구의 곳곳에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 생길 것이다(계 12:9; 13:2; 6:8).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악마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계 12:9,12)

...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적그리스도)에게 주었더라 (계 13:2)

E.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상처를 입고 명백한 치유가 일어나는 사건은, 첫째 인봉에서 그가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데에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계 13:3,12,14).

F. 멸망의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높이며 그 자신의 우상(가증한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울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단 8:13; 9:26,27; 11:31; 12:11; 마 24:15; 막 13:14; 살후 2:3-4; 계 13:12-18).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 24:15-16)

G. 짐승(적그리스도)의 우상에는 악마적인 권능이 더해져서, 마치 생각하고, 말하고, 숨쉬고, 법령을 제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계 13:14-16).

H. 짐승(적그리스도)의 표는 사람들의 오른 손이나 이마에 있는 대중적인 표시가 될 것이며,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식이 될 것이다(계 13:16-17).

I.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실 것이다(슥 12:1-3; 14:2).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 (슥 14:2)

V. 첫째 인봉에 대한 다른 해석들

A. 예수님께서 말 탄자를 풀어놓는 자이심과 동시에 말을 탄자가 되실 수는 없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궁정에서 인봉을 떼는 분이심과 동시에 그 인봉의 내용인, 생물의 명령으로 인해 오는 자가 되어야 함

을 말하는 것이다.

B. 어떤 사람은 인봉을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승리하신 예수님, 또는 역사를 통한 복음의 승리를 상징한다고 본다. 또 어떤 이들은 이를 로마 제국이 열방을 정복한 사건 또는 로마 제국이 파르티아를 침공한 사건으로 봄으로, 이 인봉의 내용이 고대의 군사적 침략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본다.

1. 이 세 가지 관점들은 과도한 영적 해석이며, 이는 화살이 없는 활, 한 개의 면류관과 같은 이 일의 상세한 사항들을 무시해야만 한다. 또한 복음이 모든 역사를 통해 모든 열방에서 승리하지 않았거나, 첫째 인봉이 이어서 오는 3개의 인봉과 가지는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못한다.

2. 첫째 4개의 인봉은 각각 연관성이 있다. 각 인봉의 내용은 인간의 죄가 자유롭게 풀어짐으로 일어나는 일들과 본질적인 유사성이 있다.

3. 첫째 말 탄자와 나머지 세 명의 말 탄 자들의 정체성은 매우 명확하며, 첫째 말 탄 자가 나머지 세 명의 말 탄 자와 극명하게 다를 것이라는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 첫째 말 탄 자를 예수님으로 보는 것은 다른 세 명의 말 탄 자들을 함께 보면 무리가 뒤따른다. 예수님을 나머지 말 탄 자들과 한 부류에 넣는 것은 예수님을 과도하게 축소시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영광과 광채 가운데 계시는 것으로 묘사된다(계 1:12-18; 14:16-16; 19:11-16). 예수님께서서는 면류관을 하나 쓰고 활을 들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C. 계시록 6:2절의 흰 말을 탄 자와 계시록 19:11-16절의 흰 말을 타고 나오시는 이는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 6:2)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 15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 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 19:11-16)

1. 계시록 6장의 말 탄 자는 한 개의 승리의 면류관(그리스어, *stephanos*)을 쓰고 있을 뿐이지만, 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면류관(그리스어, *diademata*)을 가지고 계시며 이는 그분의 주권을 의미한다.

2. 계시록 6장의 말 탄 자는 화살이 없는 활을 가지고 있지만,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검을 가지고 계신다.

3. 계시록 6장의 말 탄 자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백마를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서는 5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충신, 진실, 예수님 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계시록 19:11-16).

4. 첫째 인봉의 말 탄 자는 전쟁을 치루며 나가지 않는 반면, 예수님께서서는 전쟁을 치루며 나가신다(계 19:11).
5. 예수님께서서는 대 환난 후에 오시는데 반해, 첫째 인봉은 이로 인해 대 환란이 시작된다.
- D. 첫째 인봉을 예수님이라고 해석되는 데에는 4가지 이유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 주지 못한다. 첫째는,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대적을 향해 활을 가지고 싸우시는 분으로 그려진다는 것이다(시 45:3-5). 둘째는, 예수님께서서 많은 면류관이 아닌 “한 개의 면류관” 쓰시며(계 14:14) “이기는” 분이시라는 것이다(계 3:21; 5:5; 17:14). 셋째는, 흰 색은 계시록에서 의를 나타내기 위해 14번이나 쓰였으며, 따라서 첫째 인봉의 흰 말을 탄 자는 당연히 의로운 말 탄 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첫째 인봉의 말 탄 자의 승리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얻은 승리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는 4명의 말 탄 자들의 유사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다.
- E. 첫째 인봉을 복음 전파의 승리로 보는 것은(조지 래드), 인간의 죄와 폭력이 드러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풀어지도록 하는 나머지 세 명의 말 탄 자들과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게 만든다. 이 해석 또한 정복하는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진정한 복음은 고대 로마 제국의 열방들을 정치적으로 정복하지 않았다.
- F. 첫째 인봉을 고대의 군사적 침략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로마 제국이 열방을 정복한 사건 또는 로마 제국이 파르티아 기병대를 침공한 사건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파르티아(오늘날의 이란)는 로마의 가장 위험한 적 중 하나였으며, 그들은 말과 활을 잘 쓰는 자들로 알려져 있었다. 이 해석은 4명의 말 탄자의 종말론적인 성격과 맞지 않으며, 전체적인 문맥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로마의 정복자들은 흰 말이 아닌 전차를 타고 정복을 해나갔다. 이 구절을 군사적인 활동으로 보는 것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데, 이는 1세기 전후의 군사적인 정복들은 그 수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